



세계경제지평

Global Economic Horizon

國際競爭力의 갈등

— 진부한 문제와 새로운 도전 —

李在雄(연구자문위원, 성대 교수)

미국 경쟁력위원회(COC)의 대니얼 버튼은 “미래의 경쟁력은 技術革新에 달렸다. 그리고 연구개발(R&D)과 첨단기술산업의 육성이 기술혁신의 기초이며 미래경쟁력을 결정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에 미국이 정보통신 등 첨단기술부문에서 일본을 크게 앞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정책도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경쟁력 측면에서 일본을 또다시 압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쟁력위원회는 미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립된 민간기구이다. 아마 미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구들이 각기 자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세계는 國境없는 地球村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 속에서 급속한 기술혁신으로 生産方式이 크게 개선되고 각국은 오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無限競爭을 벌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 변화는 이미 世界貿易機構(WTO)의 출범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결국 누가 더 좋은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남보다 싸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기술수준의 優位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의 비약적인 生産性 向上은 급속한 기술진보 및 혁신에 힘입은 바 크다. 기술혁신이

야말로 18세기말 맬서스(T. Malthus)의 음울한 人口論이나 세계경제의 成長限界論 등을 극복하고 人類의 未來를 낙관하도록 하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각국이 오직 경쟁력 강화에만 집착해서는 세계경제의 근본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개별 기업이나 국가의 입장에서는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 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나 각국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전체적인 生産能力은 확대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적인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소위 '構成의 矛盾'이 존재한다. 더구나 심각한 문제는 그런 가운데 생산과잉과 분업이 증대되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총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先進國에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공급능력이 엄청나게 확대되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극소수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지만 그들이 모든 미국사람들을 먹여 살릴 뿐 아니라 세계시장에 무제한으로 수출할 수 있을 만큼 막대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過剩供給 능력은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하겠다. 각국은 적어도 比較優位가 있는 분야에서는 自國의 소비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생산능력을 갖추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추진한 결과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여러 부문에서 內需를 훨씬 능가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있다.

공급능력의 과잉은 경제 및 사회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며 앞으로 기술혁신이 계속되면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우선 기술수준이 높은 경제일수록 상품생산부문의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에 서비스生産部門의 비중이 확대된다. 그 원인은 주로 상품생산부문 보다 서비스生産部門의 인력흡수 능력이 크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상품생산부문의 생산성이 서비스생산부문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할수록 노동은 서비스부문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의 선진국 실업문제는 심각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의 실업률은 평균 10%수준에 이르렀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그보다 더욱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도 과거에는 4%수준의 실업률을 실질적인 完全雇傭으로 보았으나 근래에는 이것이 6%수준으로 높아졌다.

선진국의 실업은 이제 경기순환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실업문제가 심각한 선진국일수록 노동조합이 강력하며 노동권익의 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정부규제가 노동시장의 更直性을 초래하고 고용증대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실업이 좀체로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선진국일수록 인구증가율은 정체되는 반면 급속하게 老齡化 사회가 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200년전 맬서스는 인구가 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지를 알지 못했다. 천연두와 같은 질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그 맹위가 쇠퇴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다. 예방접종의 보급이나 당시에 여자들의 결혼연령이 낮아진 것도 또 다른 원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근래에 부유한 선진국에서 인구증가율이 떨어지는 것은 또 무슨 이유 때문인가? 특히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유아사망률이 크게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데도 인구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선진국에서 이러한 여러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 가령 기술수준이 높고 생산능력이 과잉상태인 선진국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게다가 실업자와 노령인구도 적어서 많은 사람들이 쉬지 않고 일을 한다면 그들은 아마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생산과잉에 빠지게 될 지 모른다. 따라서 과잉공급능력 만큼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실업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현상은 한국경제에서도 조만간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벌써 노동을 기피하는 소위 3D現象이 나타나고 노조활동의 강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도 만만치 않다. 노령인구의 비중도 현재는 5.7%이지만 2000년까지는 7%로 높아져서 우리나라도 노령화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기업들이 최근에 고객만족, 質 위주의 경영 등을 내세우는 것도 우리의 공급능력이 점차 과잉상태로 접근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앞으로는 世界市場도 결코 무한히 광대한 것이 아니다. 주요 선진국은 물론 수출주도의 신흥공업국(NICs)들에게도 세계시장은 점점 협소해지고 있다. 이들이 각기 경쟁력 강화에만 집착한다면 공급과잉은 급속하게 협소해지는 세계시장에서 貿易戰爭을 불가피하게 하고 不況과 失業을 만성적으로 심화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19세기 이후 列強들의 제국주의 팽창추세에 대한 우려와도 비슷하다. 당시 선진국들은 식민지 쟁탈전을 벌여서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려 했던 것이다. 식민지 분할이 완료된 20세기 들어서, 특히 1930년대 이후에는 과잉생산의 해결 방안으로 유효수요를 확대해야 한다는 케인즈理論이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공급과잉 문제는 결국 세계대전이 대규모의 과잉생산 능력을 파괴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은 또다시 엄청난 생산능력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核무기와 같은 대량 파괴능력을 개발하고 있다.

과거 맬서스의 시대에는 인구와 자원간의 不均衡을 우려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人類의 발달과 생산능력의 확대로 환경파괴와 자원고갈 등 더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기술혁신은 환경보존과 자원절약,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의 量보다 質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혁신을 통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수요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서나 국제적으로나 과잉생산능력을 적절히 조절하고 경쟁력 강화와 능률향상에 못지 않게 분배의 형평에 더욱 지혜를 모아야 한다. 失業 해소를 위해서 일자리를 나누고 또 일하는 사람과 失業者간에 고통과 부담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에서는 높은 失業을 방치한 채 생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만 所得과 富가 편중된다면 사회적 불안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우대하는 제도적 경직성도 곤란하다. 국가간에도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노력이 매우 절실하다. 우리는 선진국의 과잉생

산 능력을 우려하고 있으나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직도 개발도상국에서는 人類의 4분의 3이상이 「맬서스의 세계」에서 인구폭발과 빈곤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외면한 채 각기 경쟁력 강화에만 집착한다면 기술진보가 오히려 인류에게 전쟁과 공황, 실업과 빈곤, 환경파괴와 자원고갈 등 재난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적지 않다. 21세기에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맬서스의 세계」와 「케인즈의 세계」의 兩極化라는 갈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는 것이다. 폴 케네디(Paul Kennedy)는 「가진 者」와 「가지지 못한 者」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진부한 문제이지만 21세기를 맞이하는 人類에게 또 다시 새로운 挑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 약력

- | | |
|-----------------------------------|-----------------------------|
| 서울대학교 상학사(1966) | 산업연구원(KIET) 동향분석실장(1978~82) |
| 미국 Southern Methodist 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교수(1982~현재) |
| 경제학 석사(1972), 경제학 박사(1974) |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1983~현재) |
| 미국 Manufacturers Hanover Trust 은행 | 한국금융학회 회장(1993~94) |
| 경제조사역(1974~78) |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1994~현재) |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안내

- 후원회원의 종류 : 법인회원, 개인회원
- 후원회원에 대한 주요 서비스 :
 - 연구원주관 행사에 우선 초청 및 참가비 할인
 - 연구원 발간 각종 간행물 및 회의자료 제공
 - 주요 행사의 비디오 및 녹음 테이프 제공
 - 법인회원을 위한 특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법인회원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개발
- 회원 가입 문의 : 551-3334~7

세 계 경 제 연 구 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
 전화 : 551-3334/7 Fax : 551-3339